

“지금 하십시오!”

10월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는 10월은 한 해의 끝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 그리고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고 새해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2021년도가 벌써 우리와 헤어지려 하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은 한 해입니다. 물론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감사할 것이 많겠지만요.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서 주일에도 모이지 못하며 온라인예배에만 의지하며 힘들게 올해를 시작하였지만, 감사하게도 3월부터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였고, 5월부터는 주일 점심식사를 교우들과 나누며 함께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주일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 모인다고 해도 일부의 교인들만 모여 예배하는가 하면, 언감생심 식사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교회는 비록 마스크를 쓴 상태이지만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식사도 함께 하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식사를 위해서 순별로 순장님을 중심으로 정성껏 해주시기에 참으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힘써주셔서 재용자 문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소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역시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어떤 젊은 목사님의 안타까운 장례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읽어주셨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 지금 하십시오. / 오늘 하루는 짧지만 /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 지금 하십시오. // 친절한 말 한 마디가 생각나거든 / 지금 말하십시오. /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 사랑의 말이 생각나거든 / 지금 하십시오. //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 당신의 해가 저물면 /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가고 나면 찬 바람 이는 겨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서 해야겠습니다. 인생의 겨울도 곧 찾아올 것이니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랑할 일, 용서할 일, 사과할 일, 섬겨줄 일, 베풀 일, 더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M]



“주차금지 빨간선 색칠!” (22일, 임직식 준비)

▣ 지난 주 방문하신 분

* 홍리디아 집사(정명옥 권사 인도)

▣ 교회소식.....

- 1. 서머타임 해제** : 다음 주일(11월 7일)부터는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시간에 맞추어 모든 시간이 조정됩니다.
- 2. 감사의 달** :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3. 종교개혁주일** :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 4. 창립23주년 기념 임직예배** : 11월 7일(주일) 오후 3시
* 임직자 사진촬영 : 임직식 당일 오후 2시, 본당
- 5. 3/4분기 제직회** : 오늘 2부 예배 직후
- 6. 미안마 성탄선물 보내기** : 이 동 선교사님(미안마)이 섬기는 카친족은 내전으로 인해 피난민 생활을 한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생필품 패키지를 보내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미안마 지정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20/Package).
- 7. 다니엘 기도회** : 11월 1 - 21일 매일 저녁 7시. 집회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한 은혜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다니엘기도회를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을 더욱 밝게!!” (23일, 임직식 준비)



▣ 교우동정

* 출타: 정대권/에스더

토요새벽예배 및 주일온라인예배

30일 / 오전 6시 30분

31일 / 오전 8, 11시

예배초청 / 웨키나 찬양팀

찬양과 경배 /

선하신 목자(기쁨 272)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569, 통일442)

주기도문

찬양 / 위에 계신 나의 친구(92, 통일 97)

기도 / 우정은 권사

성경봉독 / 읍기 15 : 1 - 16

찬양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 / 민경엽 목사

“하나님께 정직하라!”

찬양 /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기쁨 39장)

인사와 교제 / 다같이

찬양 / 너 시험을 당해(342, 통일 395)

=====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3)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3)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곁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105)

주일(31)	월(1)	화(2)	수(3)	목(4)	금(5)	토(6)
눅 17-18	19-20	21-22	23-24	요1-2	3-4	5-6